

[보도자료] 전역 장병 취업 부담 던다! 쿠팡, 육군 인사사령부와 전역장병 취업지원 MOU 체결

2021. 11. 17.



쿠팡은 17일 육군 인사사령부와 함께 육군본부 계룡대에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취업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쿠팡은 전역 장병 대상 채용 확대하고, 육군은 우수인재 적극적으로 추천 예정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및 상생 활동에 앞장서

2021. 11. 17 – 쿠팡이 육군 인사사령부와 손잡고 전역 예정 장병 취업지원에 적극 나선다.

쿠팡은 육군 인사사령부와 함께 육군본부 계룡대에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취업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겪고 있는 취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 나가는데 민군이 협업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협약식에는 김명규 쿠팡 전무와 고태남 육군 인사사령관(소장) 등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병들의 취업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쿠팡은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 채용을 확대하고 육군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채용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 분야 인재양성과 우수 인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장병들에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FC 운영관리직, 배송직(쿠팡친구), 안전관리직, IT보안직 등 현재 쿠팡이 모집하고 있는 채용 분야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인사사령부 - (주)쿠팡 업무협약



쿠팡은 17일 육군 인사사령부와 함께 육군본부 계룡대에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취업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명규 쿠팡 전무(사진 왼쪽)와 고태남 육군 인사사령관(사진 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태남 육군 인사사령관(소장)은 “육군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을 위한 취업지원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 전무는 “이번 민관 협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전역 장병들이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우수인재 채용에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전국 물류 인프라 확대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성장과 상생 활동에 앞장서 왔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 국내 민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신규 일자리(국민연금 가입자수 기준)를 창출했으며,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고용 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